

초등학교 4학년의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을 위한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질적 사례연구

박서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근거와 구성을 정리하고, 교육활동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의 기록에 나타난 학생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경기도 분당지역 교육청 등록 교육시설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1명이며,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정규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감정·경험, 강점, 가치, 직업세계, 흥미, 롤모델 탐색 순으로 운영되었다. 교육활동 종료 후 기관으로부터 비식별 처리된 사전 가치관 인터뷰, 회기별 활동지, 코칭일지, 부모 체크리스트 및 코칭형 질문 가이드 응답, 교사 관찰기록, 사후 RSAT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제공받아 의미단위 추출, 개방코딩, 범주화 및 범주 간 통합의 절차를 거쳐 자기이해·진로탐색 관련 8개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자료의 풍부성과 진로 표현 변화 양상의 대비를 기준으로 3명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학생 발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단편적 진로 진술에서 나아가 자신의 흥미, 강점 및 가치를 관심 직업, 필요 역량 및 미래자기상과 연결하여 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1~6회기의 실행 경험은 후속 7~12회기로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 구조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는 초등 중학년 수준의 자기이해 중심 진로코칭과 학교-가정 연계 진로대화의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초등학교 4학년,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코칭, 질적 사례연구

논문 투고일 : 2026. 06. 28.

최종심사일 : 2026. 09. 22.

게재확정일 : 2026. 09. 24.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Park Seo Kyung,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ungnam, Korea, E-mail: seokyungp@hanmail.net

I. 서론

최근 초등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흥미, 강점, 가치 및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미래의 삶과 학습에 연결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21;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또래 관계, 학습경험 및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념을 구체화해 가는 시기로, 자신의 경험과 특성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미래와 연결하는 과정에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김예성·박순영, 2008; 이주리, 2009).

초등학생 대상 진로 및 코칭 연구는 진로성숙, 진로인식, 자기효능감 및 그것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해 왔다(곽미선 외, 2021; 문주연, 2018; 박혜림·이종범, 2022; 도미향·유영주, 2025).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고학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 변인의 변화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코칭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경험, 강점, 가치 및 흥미를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직업 세계와 미래자기상에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과정적 분석은 부족하다(강남숙·정민자, 2022; 박혜림·이종범, 2022; 도미향·유영주, 2025). 또한 학교에서 시작된 진로탐색이 가정의 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본 연구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의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를 질적 사례연구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Yin, 2013). 이를 통해 초등 중학년 수준에 적합한 자기이해 중심 진로코칭의 구성 방향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의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은 어떠한 이론적·교육적 근거와 설계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2.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초등 4학년의 발달 특성과 진로교육

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기 중기에서 후기로 이행하면서 또래와의 비교, 교사의 평가 및 학업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개념을 구체화하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을 점차 분화된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다(김예성·박순영, 2008; 이주리, 2009). 따라서 이 시기의 진로교육은 직업선택이나 장기적 진로계획보다 감정, 경험, 강점, 가치 및 흥미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자기이해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진로연계교육 또한 학교생활 적응, 교과학습 및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연속적 성장을 강조한다(교육부, 2021;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본 연구에서 자기이해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 흥미, 강점, 가치 및 경험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언어·그림·행동으로 표현하며 미래의 삶과 일의 방향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발달적 과정으로 정의한다(Super, 1990; 이주리, 2009). 초기 진로탐색은 이러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 사회적 역할 및 생애경로를 살펴보는 활동을 의미하며(문주연, 2018), 두 과정은 경험의 성찰과 적용이 반복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Kolb, 1984; Zimmerman, 2000).

2. 진로코칭의 개념과 이론적 토대

코칭은 질문, 경청, 인정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내적 자원을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을 구성하도록 돕는 협력적 대화 과정이다(Whitmore, 2010; 도미향, 2019). 학습코칭은 이를 학습 맥락에 적용하여 정서, 동기, 학습전략 및 자기조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김태균·유기웅, 2023; 도미향·유영주, 2025), 진로코칭은 학생이 흥미, 강점, 가치 및 경험을 직업 세계와 미래 삶의 방향에 연결하도록 돕는 접근으로서 특정 직업의 권유나 검사 결과의 일방적 전달과 구별된다(Whitmore, 2010; 문주연, 2018; 강남숙·정민자, 2022). CAREER-PATH는 학습코칭의 계획 - 실행 - 성찰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되, 그 목적을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에 두었다(도미향 외, 2026).

본 프로그램의 관계 원리는 인간존중, 가능성 중심, 관계적 실천 및 전인적 성장을 강조하는 C-PLUS 코칭 철학에, 회기의 대화 흐름은 ACTIVE 코칭 대화 모델에 기초하였다(도미향, 2019). 이러한 코칭 접근은 초등학생의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부모 - 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 왔다(김은영·김응자, 2023; 도미향·김은영, 2024). 또한 경험학습이론은 일상 경험을 성찰과 개념화를 거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원리를(Kolb, 1984), 자기조절학습이론은 작은 목표설정과 점검·성찰의 순환을(Zimmerman, 2000) 제공한다. 변형학습이론은 제한적 자기인식이 성찰을 통해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보조적 관점을 제공하나(Mezirow, 1991), 성인학습 맥락에서 발전한 이론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잘하는 것이 없다”와 같은 초기 진술이 경험과 강점에 근거한 진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3. 선행연구와 설계 시사점

곽미선 외(2021)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림,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박혜림과 이종범(2022)은 그림 증진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문주연(2018)은 자기탐색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진로인식 효과를 제시하였다. 도미향과 유영주(2025)는 자기이해 - 목표설정 - 실행계획 - 자기성찰의 단계형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강남숙과 정민자(2022)는 활동지와 면담을 활용하여 진로탐색 과정을 사례분석하였다. 부모교육 측면에서는 부모의 코칭적 상호작용과 자율성 지지가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및 진로성숙과 연결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도미향·김은영, 2024; 홍운경·최혜진, 2024).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고학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여, 4학년 학생의 진로 관련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표 1>은 각 문헌이 제시한 발달 및 교육적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CAREER-PATH의 설계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표 1> 문헌에 근거한 CAREER-PATH 프로그램의 설계 시사점

관련 문헌	문헌이 제시한 발달·교육적 특성	CAREER-PATH 설계 시사점	해당 회기
김예성·박순영 (2008); 이주리(2009)	또래 비교, 교사 평가,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개념이 분화되며,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성을 비교·설명하는 능력이 발달함	감정·경험 지도, 성공경험 회상, 카드·그림·짝 인터뷰 등 구체적 매개 활동으로 자기표현 지원	1~3회기
교육부(2021); 교육부·17개시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삶·학습·진로를 연결하고 학교급 간 연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을 강조함	자기이해 → 직업 세계 이해 → 미래자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	1~6회기
Kolb(1984)	구체적 경험 - 성찰 - 개념화 - 적용의 순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짐	경험 회상(1회기) → 강점·가치 의미화(2~3회기) → 직업·흥미·몰도넬 적용(4~6회기)	1~6회기
Zimmerman(2000); 도미향·유영주(2025)	목표 설정 - 수행 - 점검 - 성찰의 순환이 자기조절을 형성함	회기별 작은 탐색과제와 ‘나의 진로 여정 첫걸음’ 작성	5~6회기
Mezirow(1991)	경험과 기존 관점에 대한 성찰이 관점의 확장을 이끔	‘모르겠다’는 진술을 흥미·강점의 언어로 다시 탐색하도록 돕는 재질문	전 회기
Whitmore(2010); 도미향(2019)	질문·경청·인정에 기반한 비평가적 관계가 자기탐색과 주도성을 지원함	C-PLUS 관계 원리와 ACTIVE 대화 흐름(도입 - 전개 - 정리 - 성찰)	전 회기
김은영·김응자 (2023)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나누는 경험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과 자기조절을 촉진함	학생 발화 중심의 질문·경청 구조와 짝·모둠 나눔	전 회기
도미향·김은영 (2024); 홍윤경·최혜진(2024)	부모의 코칭적 상호작용과 자율성 지지가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진로성숙과 연결됨	부모 체크리스트와 가정용 코칭형 질문 가이드	1~3회기, 4~6회기

출처: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제 교육 맥락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경험되는지를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탐색하는 질적 사례연구로 설계되었다(Yin, 2013). 이에 프로그램의 통계적 효과를

검증하기보다, 학생들이 회기별 활동과 코칭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 경험, 강점, 가치, 흥미 및 미래자기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진로와 연결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프로그램은 ADDIE 모형에 따라 개발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별도의 설문조사나 교사·학부모 면담을 통한 경험적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진로연계교육 자료, 초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자기이해 관련 연구,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개발 근거를 도출하였다(교육부, 2021;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광미선 외, 2021; 문주연, 2018; 박혜림·이종범, 2022). 설계 단계에서는 <표 1>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6회기 구조와 회기별 목표, 도입 - 전개 - 정리 - 성찰의 활동 흐름을 설계하였다(도미향, 2019; 도미향·유영주, 2025). 개발 단계에서는 학생용 활동지와 카드 자료, 1~3회기와 4~6회기에 대응하는 부모 체크리스트 및 코칭형 질문 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실행 단계에서는 이를 기관의 교육활동으로 정규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통계적 효과 검증 대신 교육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성은 연구결과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분석대상은 경기도 분당지역 교육청에 등록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1명(남학생 5명, 여학생 6명)의 교육활동 기록이며, 이들은 동일 학급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해당 기관은 정규교과, 체험활동 및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비교적 유연하게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 특성으로 인해 감정·경험 지도, 카드 활동, 짝 인터뷰, 롤모델 탐색 및 부모 연계 활동을 정규수업 맥락에서 적용하고 학생 반응이 기록으로 축적되어 있어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다만 해당 기관의 학급 규모,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교사 - 학생 관계, 학생의 언어 배경 및 학부모 참여 환경은 일반 초등학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특정 교육기관의 맥락에서 나타난 초기 실행 사례로 해석해야

한다(Yin, 2013; Lincoln & Guba, 1985). 학생명은 A~K로 익명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이 통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생성·보관한 기존 기록을 이용한 연구로, 교육활동 종료 후 IRB 공용위원회에 심의면제를 신청하였다(2026년 9월 27일 신청, 접수번호: 3481-001). 기관은 자료 제공 전 학생 성명, 영문 이름, 형제·친구·교사 이름, 거주지 등 식별 가능 정보를 삭제하고 학생을 A~K의 기호로 표기하였으며, 실명과 기호의 대응표는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대리인에게 기록의 연구 활용 목적, 비식별화 방법 및 결과 공개 방식을 안내하고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용 거부 사례는 없었다.

3. 연구 절차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기관의 교육활동으로 운영되었다. 문헌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 후, 사전 가치관 인터뷰로 학생들의 초기 생각을 확인하였다. 이어 6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기별 활동지, 코칭일지 및 교사 관찰기록이 작성되었고, 1~3회기와 4~6회기 종료 시점에 부모 체크리스트와 질문 가이드 응답이 회수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RSAT 종합적성검사가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교육활동 종료 후 기관으로부터 비식별 처리된 기록을 제공받아 분석·해석하였다.

4. 자료 수집

연구자는 교육활동 종료 후 기관으로부터 비식별 처리된 기록을 제공받아 분석·해석하였다. 자료원과 활용 방식은 <표 2>와 같다. 학생 활동지와 코칭일지는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관련 표현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부모 및 교사 자료와 RSAT 결과는 해석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RSAT는 사전·사후 효과 검증 도구가 아니라 학생이 표현한 강점, 흥미 및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표 2> 자료원과 분석에서의 활용

자료원	수집 시점	주요 내용	분석에서의 활용
사전 가치관 인터뷰	프로그램 전	가치, 흥미, 의미 있는 경험, 진로에 대한 초기 생각	초기 자기이해 및 진로 관련 표현 파악
학생 활동지	1~6회기	감정·경험, 강점, 가치, 직업, 흥미, 롤모델 관련 표현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표현 분석(핵심)
학생별 코칭일지	1~6회기	학생 발화, 관심 직업, 필요 역량, 미래자기상	학생별 변화 과정 추적(핵심)
부모 체크리스트 및 질문 가이드 응답	1~3회기, 4~6회기	가정에서 관찰된 흥미·강점·가치·진로 관련 대화	학교 - 가정 연계 경험의 보조적 해석
교사 관찰기록	운영 중	참여 양상, 상호작용, 활동 반응	활동지·코칭일지 해석의 맥락 보완
RSAT 종합적성검사	종료 후	성격적성, 다중지능,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질적 자료 해석의 참고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5. 자료 분석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다섯 단계로 분석하였다(Mayring, 2014; Yin, 2013). 첫째, 모든 자료를 학생별·회기별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 학생의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이 드러나는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단위로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단위에 학생의 표현을 최대한 살린 예비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잘하는 것: 레고”는 ‘경험 기반 강점 진술’로, 수의사를 희망한 학생의 “수학, 과학, 사회를 잘해야 합니다”는 ‘직업 - 필요역량 연결’로 코딩하였다. 넷째, 유사한 코드를 비교·통합하여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범주는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하되 프로그램의 회기 구조와 자기 이해 - 진로탐색의 개념적 구분에 비추어 범주명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이해 영역의 ‘감정·경험의 인식’, ‘강점의 발견과 언어화’, ‘가치의 인식’과 진로탐색 영역의 ‘흥미 탐색’, ‘직업 세계 이해’, ‘흥미 - 직업 연결’, ‘직업 - 필요역량 연결’, ‘롤모델 및 미래자기상 구성’의 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다섯째, 범주 간 관계를 검토하여 연구문제2의 하위 결과로 통합하였다.

분석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지, 코칭일지, 부모 응답 및 교사 관찰기록을 교차 비교

하는 자료원 삼각검증을 실시하고, 해석과 불일치하는 자료도 함께 검토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 11명 가운데 회기 참여의 연속성, 자료의 풍부성, 변화 경로 유형의 대비를 기준으로 3명(학생A, E, G)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결과 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CAREER-PATH는 <표 1>의 시사점에 따라 세 가지 설계 원리로 구성되었다. 첫째, 경험에서 출발하는 단계적 구조이다. 추상적인 진로계획을 요구하기보다 학생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강점과 가치를 의미화하고, 이를 직업, 흥미 및 롤모델 탐색에 적용하도록 회기를 배열하였다(Kolb, 1984; 이주리, 2009). 둘째, 비평가적 코칭 대화이다. 모든 회기는C-PLUS의 관계 원리와 ACTIVE 대화 흐름에 따라 도입 - 전개 - 정리 - 성찰로 운영하였고, 교사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그 경험에서 무엇을 잘했나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와 같은 질문으로 학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도왔다(Whitmore, 2010; 도미향, 2019). 셋째, 작은 실천과 학교 - 가정 연계이다. 6회기에는 ‘나의 진로 여정 첫걸음’을 작성하여 탐색 결과를 작은 실천으로 연결하였고(Zimmerman, 2000), 부모 체크리스트와 코칭형 질문 가이드를 통해 가정에서도 자녀의 흥미, 강점, 가치 및 관심 직업에 관해 질문하고 경청하도록 하였다(도미향·김은영, 2024; 홍윤경·최혜진, 2024). 회기별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초점)	회기 목표	주요 활동	산출물 및 연계자료
1회기 감정·경험탐색	감정과 의미 있는 경험을 돌아보며 자기이해의 출발점을 마련한다	나를 여는 질문, 감정 지도, 경험 지도 작성	감정·경험 지도, 1~3회기 부모 체크리스트 및 질문 가이드

2회기 강점탐색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한다	강점 카드 분류, 성공경험 회상, 짝 인터뷰	강점 카드 활동지, 성공경험 인터뷰 기록
3회기 가치탐색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그 의미를 표현한다	가치 카드 분류, 우선순위 정하기, 가치 나눔	가치 카드 활동지, 부모 대화 질문
4회기 직업세계이해	다양한 직업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이해한다	직업 그림·카드 탐색, 직업의 역할과 필요 능력 생각하기	직업 세계 이해 활동지, 4~6회기 부모 체크리스트
5회기 흥미 기반 진로탐색	좋아하는 활동을 탐색하고 흥미와 직업을 연결한다	좋아하는·싫어하는 활동 비교, 흥미 카드 정렬, 흥미 - 직업 연결표	흥미 활동 카드, 흥미 - 직업 연결표
6회기 롤모델 및 미래자기상	롤모델의 삶과 특성을 탐색하고 미래 방향을 상상한다	롤모델 선정, 배우고 싶은 점 정리, 나의 진로 여정 첫걸음 작성	롤모델 분석 활동지, 부모 질문 가이드

출처: 연구자 작성.

2. CAREER-PATH 프로그램 실행에 나타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경험

연구문제2에 대한 결과는 8개 분석범주를 네 가지 하위 결과로 통합하여 제시한다. 학생별 주요 발화는 <표 4>에 정리하였으며, 대표 사례(학생A, E, G)는 각 하위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시한다.

1) 초기 진로 관련 표현: 단편적 진술과 표현의 공백

프로그램 초기 학생들의 진로 관련 표현은 관심 직업을 한두 개 제시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부 학생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잘하는 것: 모름/ 어려운 것: 밥하는 것”(학생A, 코칭일지 1차시)

“요즘에 관심 있는 것 모르겠다.”(학생B, 코칭일지 1차시)

관심 직업을 제시한 학생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학생G), “동물과 관련된 걸 하고 싶어서”(학생H)와 같이 흥미 수준의 이유를 들었을 뿐, 자신의 강점이나 가치와 연결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초기 진술의 공백이 진로에 대한 관심의 부재라기보다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와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주리, 2009; 문주연, 2018).

2) 강점·가치·흥미 언어의 구체화

감정·경험 지도와 강점·가치 카드 활동을 거치며 학생들은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코딩이 어려웠는데도 끝까지 해결해서 게임을 만들어 내서 뿌듯하고 기뻐다.”(학생K, 코칭일지 4차시)

“어른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학생I, 코칭일지 5차시)

학생K의 진술은 성공경험을 통해 끈기라는 강점을 발견한 것이며, 학생I의 진술은 가치를 이유와 함께 설명한 것이다. 대표 사례인 학생A는 초기에 잘하는 것을 “모름”이라고 답하였으나, 강점 탐색 이후 “내가 잘하는 것: 레고”라고 말하고, 이후 흥미를 도자기 만들기와 요리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경험의 회상과 의미화가 자기이해의 언어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Kolb, 1984; Mezirow, 1991).

3) 흥미와 직업의 연결: 필요 역량의 인식

직업 세계 이해와 흥미 - 직업 연결 활동 이후 학생들은 관심 직업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들과 소통, 동물에 대한 정보, 교감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학생H, 사육사, 코칭일지 3차시)

“이 직업을 하려면 많은 지식, 수학, 생물학 그리고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학생I, 생명학자·프로그래머·엔지니어, 코칭일지 3차시)

대표 사례인 학생E는 초기에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후 필요한 역량으로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기, 수학, 과학, 운동”을 들고 “어른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는 일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대상에 대한 선호가 관계적 가치와 직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초등 진로교육이 흥미와 강점을 다양한 일의 방식에 연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과 부합한다(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4) 롤모델과 미래자기상의 형성

롤모델 탐색에서 학생들은 롤모델의 직업보다 태도와 행동에 주목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이를 자신의 미래 모습과 연결하였다.

“롤모델은 의사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똑똑하다. 롤모델처럼 되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책을 꾸준히 읽고 어떤 것이든 노력하는 것이다.”(학생C, 코칭일지 5차시)

“동물을 잘 돌보는 의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학생D, 코칭일지 3차시)

그러나 미래자기상 범주에서는 학생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표 사례인 학생G는 약사, 게임디자이너, 과학자, 축구선수로 관심 직업을 넓히고 필요 역량으로 “과학, 게임, 코딩, 축구, 사회, 소통”을 들었으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탐색 범위의 확장이 곧바로 미래자기상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않으며, 4학년 학생의 진로탐색이 결정으로 수렴하기보다 반복적 탐색이 필요한 과정임을 보여준다(Super, 1990; Zimmerman, 2000).

<표 4> 학생별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관련 주요 발화

학생	초기 진술	강점·가치·흥미 표현	관심 직업과 필요 역량	롤모델·미래자기상
A	“잘하는 것: 모름”	“내가 잘하는 것: 레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 요리사/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 보고 영상도 많이 봐야 합니다”	“도자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B	“요즘에 관심 있는 것 모르겠다”	“내가 잘하는 것: 미술, 컴퓨터”	수의사/ “수학, 과학, 사회를 잘해야 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C	피부과 의사 “피부도 고쳐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손을 들어 발표하고 질문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됨	피부과 의사/ “과학과 수학, 책 많이 읽기”	롤모델: 의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똑똑하다”
D	“꿈은 계속 바뀌고 있고, 최근 관심 있는 것은 읽고 쓰기”	“내가 잘하는 것: 책 읽기, 글 쓰기”	수의사, 피부과 의사/ “수학, 과학, 동물에 대해 알기, 기계 다루기, 언어”	“동물을 잘 돌보는 의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E	수의사 “동물이 좋아서, 동물도 불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는 일과 다른	수의사/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기, 수학, 과학,	“동물들을 잘 치료하는 사람”

	수 있고, 치료하고 싶어서”	사람을 돕는 일”	운동”	
F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좋아하고 잘하고”	친구가 말하는 나 “피아노를 잘 치고 순하다”	피아니스트, 화가, 수영선수/ “예술을 잘해야 합니다”	“유명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G	약사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잘하고 싶은 것 “수학, 국어, 영어”	약사, 게임디자이너, 과학자, 축구선수/ “과학, 게임, 코딩, 축구, 사회, 소통”	롤모델: 담당 교사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H	사육사 “동물과 관련된 걸 하고 싶어서”	“내가 잘하는 것: 만화책 읽기, 만화 그리기”	사육사/ “사람들과 소통, 동물에 대한 정보, 교감 능력”	“벨루가와 다른 동물들을 끌어들여 키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I	생명공학 “수명을 더 늘릴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	생명학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많은 지식, 수학, 생물학 그리고 코딩”	롤모델: 아빠 “일을 해서 우리 도시에서 인정받기 때문”
J	축구선수 “가족들이 축구 관련”	“내가 잘하는 것: 체력과 축구”	축구선수/ “강한 체력과 피지컬,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한 플랜”	“축구 연습을 꾸준히 한 것에 대해 뿌듯할 것”
K	게임디자이너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딩이 어려웠는데도 끝까지 해결해서... 뿌듯하고 기뻐다”	게임 크리에이터/ “컴퓨터, 미술(디자인), 코딩”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디자인하고 싶어요”

출처: 학생별 코칭일지(1~5차)에서 발췌. 음영은 대표 사례(학생A, E, G). 발화는 원문을 유지하되 맞춤법만 정리함.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의 자기이해와 초기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CAREER-PATH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 “모름”과 같이 비어 있던 학생들의 자기 진술이 경험에 근거한 강점과 가치의 언어로 채워졌다는 점은, 4학년 학생의 진로 표현이 관심의 부족보다 언어화 기회의 부족

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 경험과 카드, 그림, 짝 인터뷰를 매개로 한 코칭 대화는 이 시기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성찰의 장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주리, 2009; Kolb, 1984). 이는 자기탐색 진로코칭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문주연, 2018)와 맥을 같이하면서, 진로성숙이나 그림 등 결과 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곽미선 외, 2021; 박혜림·이종범, 2022; 도미향·유영주, 2025)가 보여주지 못한 ‘학생이 자신과 진로를 연결하여 말하게 되는 과정’을 학생의 발화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강남숙·정민자, 2022).

둘째, 학생들은 흥미 - 직업 - 필요 역량을 스스로 연결하고 롤모델의 직업보다 태도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초등 진로교육이 흥미, 강점, 가치를 다양한 일과 삶의 방식에 연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과 부합한다(교육부, 2021;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반면 미래자기상 구성에서 나타난 큰 개인차는, 고학년 대상 단계형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목표설정 - 실행계획 단계(도미향·유영주, 2025)를 4학년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반복적 탐색과 작은 실천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Zimmerman, 2000). 이러한 결과는 목표설정과 실행을 다루는 후속 회기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실행한 것은 6회기이므로 후속 회기의 구성과 효과는 별도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CAREER-PATH는 부모 체크리스트와 코칭형 질문 가이드를 통해 학교의 진로탐색을 가정의 대화로 확장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는 부모의 코칭적 상호작용과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진로성숙에 기여한다는 부모교육 연구(도미향·김은영, 2024; 홍윤경·최혜진, 2024)에 비추어, 진로교육이 학생·교사·부모가 함께하는 지속적 대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Whitmore, 2010). 또한 RSAT 결과를 학생의 언어와 함께 해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한 것은 검사 결과만으로 학생의 진로를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분당지역 한 교육기관의 4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 초등학교로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RSAT를 사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양적 변화나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자 간 코딩 일치도 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토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Yin, 2013; Lincoln & Guba, 1985). 넷째, 연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을 사후에 분석하였으므로 학생 경험을 면담 등으로 심층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 유형에서 프로그램을 반복 적용하고, 진로성숙, 진로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 관련 변인을 포함한 혼합연구를 통해 과정적 경험과 양적 변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설정과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후속 회기를 개발하여 그 적합성과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숙·정민자(2022).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Human Ecology Research*, 60(4), 577-593.
- 곽미선·박혜림·이종범·이수란(2021).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829-839.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 초등학교, 교육부.
- 김예성·박순영(2008).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신체특성과 학교적응 및 심리적응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1), 19-39.
- 김은영·김용자(2023).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모교육연구*, 20(4), 67-88.
- 김태균·유기웅(2023).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20(3), 105-129.
- 도미향(2019). 전문코치양성을 위한 CPA코칭모델 개발: ACTIVE코칭대화모델 기반 C-PLUS 코칭프로그램. *코칭연구*, 12(3), 95-112.
- 도미향·김미영·박서경·박현영·김근형(2026).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촉진을 위한 C-PLUS 기반 학습코치 양성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23(2), 195-219.
- 도미향·김은영(2024).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부모교육연구*, 21(1), 29-47.
- 도미향·유영주(2025).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22(2), 149-171.
- 문주연(2018). 자기 탐색 진로코칭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이종범(2022). 그릿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실과교육연구*, 28(3), 55-75.
- 이주리(2009).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레적과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30(2), 43-5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 프로그램 및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부.
- 홍윤경·최혜진(2024).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1), 5-28.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ayring, P. (201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oretical foundation, basic procedures and softw

are solution. Klagenfurt.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 - 261). Jossey-Bass.
- Whitmore, J. (2010) *Coaching for Performance: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oaching and Leadership*; UK: Hachette.
- Zimmerman, B. 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13 - 39). San Diego, CA: Academic Press.<https://doi.org/10.4324/9780203831076>

Abstrac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AREER-PATH Career Coaching Program for Self-Understanding and Early Career Exploration among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A Qualitative Case Study

Park, Seo Kyung*

This study develops and implements Sessions 1 - 6 of the CAREER-PATH career coaching program for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and explores students' experiences from a qualitative case study perspective. Participants were 11 fourth-grade students at an educational facility registered with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Bundang, Gyeonggi-do. The program was implemented from December 2025 to May 2026, addressing emotions and experiences, strengths, values, the occupational world, interests, and role models. Data included pre-program value interviews, worksheets, coaching logs, parent checklists, teacher observations, and post-program residential substance abuse treatment (RSAT) results. Through repeated reading, extraction of meaning units, open coding, and categorization, eight categories were derived. Three students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cases based on continuity of participation, richness of data, and contrast in patterns of change. Students moved beyond fragmentary career-related statements and connected their interests, strengths, and values with preferred occupations, required competencies, and future self-images. Sessions 1 - 6 were confirmed as a foundation expandable to subsequent sessions, suggesting the potential of self-understanding-centered career coaching and school - home career dialogue.

Keywords: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self-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career coaching, qualitative case stud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